

이슈&진단

No. 384

2019. 09.04.

GRI

Makes a Better Future for Korea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반응과 시사점

- 작성 유영성 / 기본소득연구단장
(ysyoo@gri.kr, 031-250-3125)
김병조 /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마주영 /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원

목 차

쟁점과 대안

- I.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 II.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의 반응
- III. 청년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반응
- IV. 시사점

- 「이슈 & 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경기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A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이다.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
(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쟁점과 대안

2019년 4월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는 기본소득의 핵심 구성 요건들을 갖춘 사업이며, 실제 정책사업의 실행(trial)에 해당하여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보여줬던 유사실험(experiment)이나 시범사업(pilot project)과는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과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만족할만한 정책효과를 보이는지는 현재 전세계 기본소득 관계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최근 들어 경기연구원은 청년기본소득 정책만족도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2019년 4월 1분기 지급이 마무리된 뒤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아 사용한 청년들(124,335명; 83.5%) 중 3,5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2019.7.11~7.21)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경기도 만24세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크게 만족하며, 또 사업 확대에 긍정적이다. 즉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만족'은 80.6%로 '불만족' 4.9% 보다 월등히 높다. 핵심 이유로 '만24세 청년들에게 구별 없이 준다'(35.2%)와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31.6%)를 꼽고 있다. 보편적 복지 정책과 지역경제 정책의 조합이라는 경기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변화 있음'(60.3%)이 '변화 없음'(15.9%)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작은 금전 문제로 인하여 친구들과 교제도 꺼려했던 것을 해소할 수 있었다(31%)가 가장 큰 반응이었다는 점은 청년들이 얼마나 침체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이 그 숨통을 터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와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음(69.29%)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만24세 청년의 국가에 대한 체념적, 비관적 삶의 태도를 되돌릴 수 있는 계기를 비록 작은 금액일지언정 기본소득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이다. 더 나아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의 연령 확대(68.53점)와 타 지역 확대(71.31점), 장애인·농민·예술인 등 특정집단으로 확대(66.86점)에 높게 반응하고 있어 청년기본소득의 확대 및 여러 범주기본소득의 적용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사안이다. 지역화폐의 경우도 '경기지역화폐로 받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84.26점),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70.06점)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청년기본 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73.6점)와 지역공동체 함양(69.91점)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실제 사용에서 '사용가능한 가맹점 찾기'와 '거주지의 사용범위 확대'는 추후 개선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I.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 경기도가 2019년에 실시한 야심찬 기본소득 정책사업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국가 사무의 위임이 아닌,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고유사무로서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¹⁾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24세 청년('19년 약 17만 5천명) 개인에게 분기당 25만 원, 년 총 100만 원을 지급함

- 만2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매 분기 지급하기 때문에 매분기 시작 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의 구간이 정해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규모 및 소요예산>

(단위 : 억원/명)

	구분	계(억원/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계	6,866	1,753	1,746	1,698	1,669
	도비(70%)	4,806	1,227	1,222	1,189	1,168
	시군비(30%)	2,060	526	524	509	501
사업량	(주민등록수)	686,550	175,281	174,557	169,812	166,900

자료 :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2019).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운영 지침(안)」.

<분기별 지급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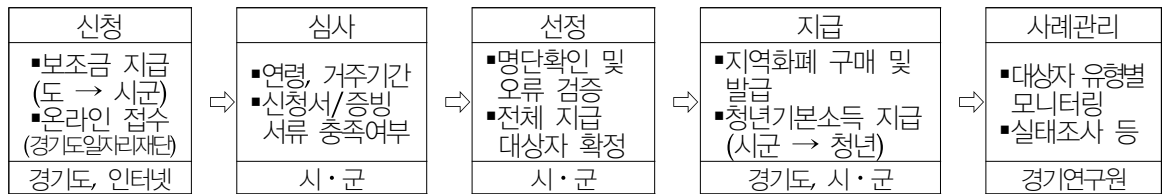
분기별	지급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비고
1분기	'19. 01. 01	'94. 01. 02 ~ '95. 01. 01	
2분기	'19. 04. 01	'94. 04. 02 ~ '95. 04. 01	
3분기	'19. 07. 01	'94. 07. 02 ~ '95. 07. 01	
4분기	'19. 10. 01	'94. 10. 02 ~ '95. 10. 01	

자료 :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2019).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운영 지침(안)」.

1) 4년의 기간을 설정한 것은 현 도지사의 임기에 맞추기 위해서라기보다 책임정책의 구현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의 정책이 실행되고 정착단계를 거쳐 평가되기까지 최소한 4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기에 그렇게 한 것임.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실행될 사업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합동으로 개별 시군 단위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 및 전달하는 제도
 - 지역화폐의 발행유형은 각 시군별로 기초지자체가 선호하는 방식과 형태를 취할 수 있음
 - 지역화폐의 발행유형은 지류(종이), 카드, 모바일로 구분되며 시군별로 지역의 사정에 맞게 어느 특정 유형들을 개별 혹은 결합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추진은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급절차가 온라인 시스템 방식을 취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경기도 내 기관별 역할이 주어져 있음
 - 경기도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등을 하며, 시군의 경우 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 지역화폐 발급, 그리고 기본소득 지급을 함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경기연구원은 대상자 모니터링(사전·사후평가) 및 실태조사(만족도 등)를 함
 - 지역화폐 발급 및 기본소득 지급의 실무업무는 지역화폐 플랫폼 사업체인 코나아이(주)가 대행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 상의 홈페이지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 신청자들은 제출서류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체계 및 흐름도>



자료 :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2019),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운영 지침(안)」.

청년기본소득, 기본소득 요건을 갖추었으나 현실적 이유로 변형적 형태 취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5가지 기본소득 구성요건을 대체로 다 충족하나 현실의 타 문제들을 해결하는 취지에서 그 엄격함을 다소 완화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를 단위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통용을 개별 31개 각 시군의 경계 내로 한정함
 - 이는 시군의 지역경제에서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한 특정지역의 집중소비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내 소비유출 방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임
 - 기본소득이 그 구성요건 중 하나로 현금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현금에 대한 새로운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청년기본소득 범주를 경기도 내 시군이라는 지역적 경계를 전제한 “경기도 내 시군 단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할 경우 현금사용의 지리적 제약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음²⁾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100% 완벽한 이념형 기본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정한 5가지 구성요건을 용인 가능한 수준에서 대체로 다 충족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상과 현실, 원칙과 적용, 원리와 정책 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기 마련임

2) 기본소득 지급 대상인 사회구성원의 지리적 범주의 경계가 시군인 만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경기도의 연합체 형태의 청년기본소득이라 할 것임

<청년기본소득의 기본소득 구성요건 충족 여부>

- 기본소득 필수 구성요건 3가지 충족
 - 첫째, (범주 보편성 충족) 만24세 청년 전부를 대상으로 함
 - 둘째, (무조건성 충족) 이들의 노동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지급
 - 셋째, (개별성 충족)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주나 배우자가 아니라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
- 기본소득 추가 2가지 구성요건 준(準)충족
 - 넷째, (주기성 충족) 1년 동안 4회에 걸쳐 지급
 - 다섯째, (현금성 부분 충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준(準)현금성에 합당³⁾

자료 : 저자 작성

-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의 범주를 설정하는 범주 기본소득이라 할 것임. 이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성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⁴⁾
- 1년 동안 분기별 4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주기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1년에 한정하여 지급한다는 점은 문제시 될 수 있음. 단, 만24세는 년차가 바뀔 때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1년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특정한 나이(만24세)의 대상에게만 1년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유지되는, 즉 지속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1년이라는 협의의 한정성을 벗어남
- 준(準)현금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성을 100%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성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다만, 경기지역 화폐는 그 사용처가 방대하고 지급형태로 상품권(지류), 직불카드, 모바일 중 직불카드가 지역화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데 기존 신용카드 형태처럼 현금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

3) 지역화폐의 경우, 화폐로서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지역화폐는 엄격한 의미에서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본 원통화(태환)에 기반한 예산을 은행에 예치하여 지불준비금 형태로 보관된 선수금에 해당됨. 이로써는 지역내에서 화폐의 역할 수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서 지급하는 지역화폐의 경우 전자화폐(직불카드, 모바일)가 대부분이며 ‘현물’ 그 자체가 아니므로 현금성 화폐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임. 이는 향후 학문적 연구, 법적 검토, 실무적 논의가 요구되는 사항임

4) 만24세 청년으로서 군입대자의 경우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여 범주내 대상의 배제에 의한 비보편성 존재 여지를 제거하고 있음

<기본소득은 현금지급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는가?>

- 기본소득네트워크 등에서 강조하는 기본소득의 구성요건 중 현금성은 현물이나 특정 목적의 사용을 전제하는 바우처 등과 대비해서 설정한 개념이니 만큼 지나치게 엄격한 문자적 의미의 협의의 현금을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그런 점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음
- 다만,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 한정되고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하고 있음. 이 점에서 개인에게 있어서 현금이 지니는 사용상의 자유로움과 효용 극대화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지적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개인의 효용 극대화가 아닌 지역화폐라는 도구적 수단을 통한 사회적 효용 극대화 달성이라는 점과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준현금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 저자 작성

청년기본소득은 복지정책, 경제정책, 그리고 사회적기본권 보장 정책에 해당

□ 청년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대상층에서 가장 소외된 청년층에 대한 복지배려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적으로 포괄적 사회적 기본권 보장도 추구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기존 복지대상층에서 가장 소외된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만24~25세 사이가 실질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연령대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함. 특히, 이들에 대한 사회활동 지원, 생활유지, 심리적·재정적 지지 등을 포괄하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함
-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기본소득은 공유부(공유재산)에 대한 시민의 권리로서 인식하여 접근하는 입장 보다는 현실의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특징을 더 강하게 보인다 할 것임
- 단, 청년기본소득은 국가 차원에서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또는 감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서 다소의 결함이 수반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국가 차원의 복지와 상충되어 발생하는 문제이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향후 정책협의를 통해 개선할 사항임

※ 만24세 청년 중 기초수급대상자 수 : '19년 현재 1,601명(전체의 1%미만)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일시적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19P>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반영함
 - 청년기본소득은 지자체 지원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만 소득기준 없이 만24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됨

자료 :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2019).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운영 지침(안)」.

○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추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유부에 대한 시민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할 것임

-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의 본격적인 출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사회복지정책과 지역경제정책의 융합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사회복지 측면의 경우, 전통적 사회복지와 다른 점이 있음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의 복지를 강화해 준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특성을 갖는데, 그렇다고 이들 계층에만 한정되어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님
- 설령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선택적 복지인 기존 사회 보장제도(「사회보장기본법」 상의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와는 전혀 다른 제4형태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음

○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표방한 만큼 지역경제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분명함

- 청년기본소득이라는 복지정책이 그 핵심 특성 중 하나(현금성)에서 유연한 변화(준현금성)를 추구함으로써 경제정책으로 전환 혹은 융합, 더 나아가 사회정책적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Ⅱ.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의 반응

청년 80% 이상이 전반적으로 청년기본소득에 만족한다는 고무적 반응

□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 후, 이를 수급한 청년들의 만족도를 조사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관련 만족도 측정 및 인식변화 수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책 만족도 조사 실시

- 1분기 지급대상자 약 17만 5천명 가운데 1분기에 신청한 124,335명(83.5%)을 모집단으로 표본조사를 통해 정책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⁵⁾

<만족도 조사 개요>

- 조사명칭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 : 2019.07.17 ~ 2019.07.22
- 표본규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중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년 3,500명
- 조사방식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설문조사
- 자료 처리방법 : 산출된 자료파일은 통계패키지인 SPSS에 의해 통계처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1.6\%p$

<만족도 조사 항목>

Part I.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만족도	
-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정보 접근성 -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신청 절차 -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지원금액 및 방법 -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 - 만족 이유 및 불만족 이유(우선순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확대에 대한 인식	-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 여부 및 내용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사항 - 2020년 분기별 적정 제공 금액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인지 시점 및 경로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관심도 변화
Part II.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만족도	
- 청년기본소득 신청시 선택한 지역화폐 유형 - 선택한 지역화폐 사용시 애로사항 - 향후 선호하는 지역화폐 유형 - 지역화폐 사용시 방법 및 혜택에 대한 인지도	- 경기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향후 지역화폐 사용시 개선사항 -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한 관심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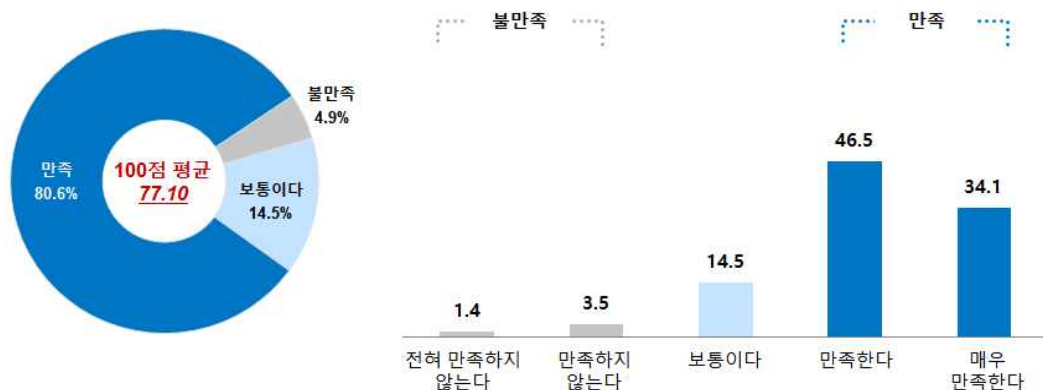
5) 1분기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 분기에 신청을 하여도 이전 분기의 기본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허용됨. 실제 1분기 지급 대상자인데 2분기에 신청한 청년들이 1만 명을 초과함

○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청년의 '만족'은 80.6%이며 '불만족'은 4.9%에 불과함

- 만족하는 이유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35.2%)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1.6%),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해야 하거나,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1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만족함의 이유가 기본소득의 구성요소인 보편성, 현금성, 무조건성에 부합한다는 점이 청년들이 기본소득에 보다 부합하는 정책에 호응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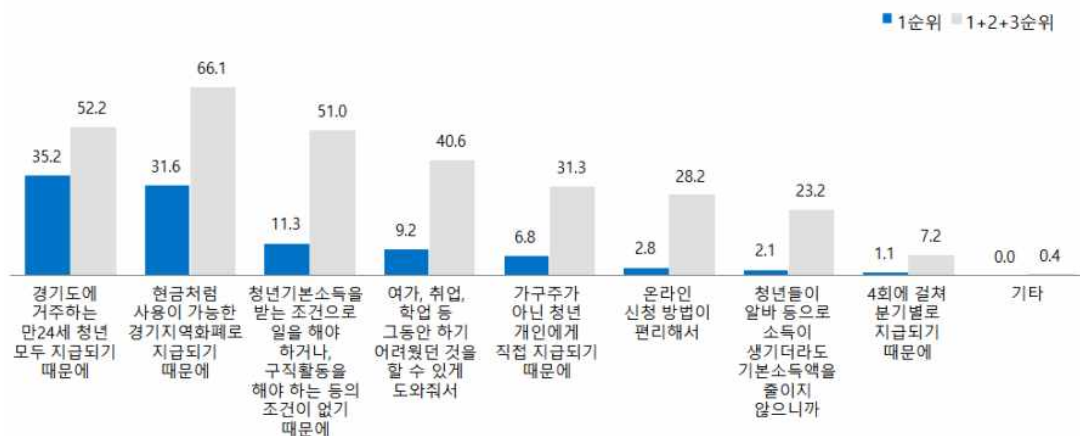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

(단위 : %)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만족” 이유(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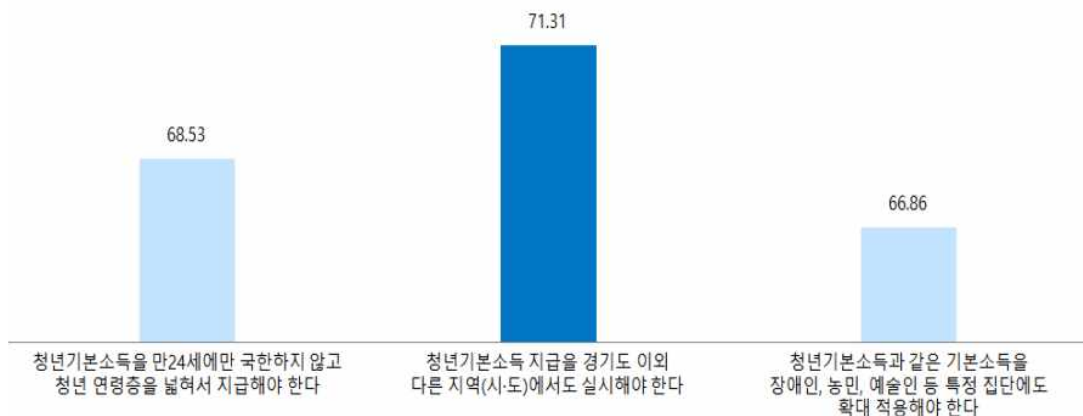
(단위 : %)



-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의 지리적 확대와 범주적 확대에도 경기도 청년 수급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반응이 71.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사업 자체를 특정 지역에 한정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을 의미
- 특히 장애인, 농민, 예술인 등 특정 집단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긍정적으로 나타나 범주기본소득의 선제적 적용에 대해 호의적임을 말해줌

<청년기본소득 사업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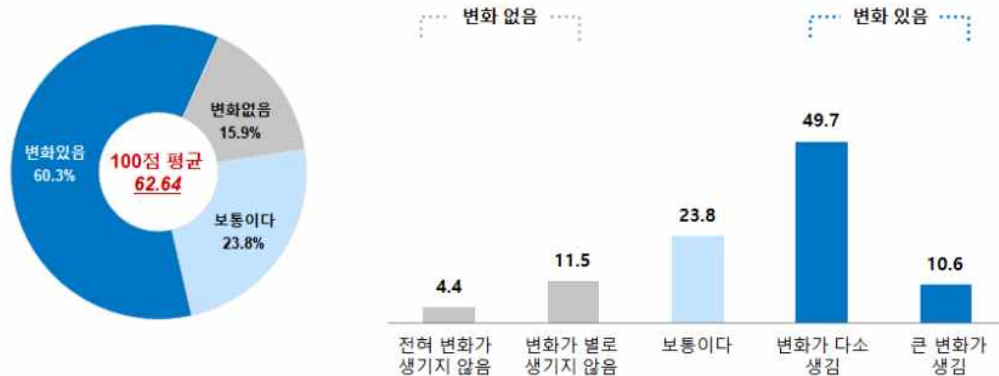
청년기본소득의 1분기 지급만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 표출

□ 개인의 삶의 변화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임

-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다 보니 특정 연령에게 다소 적은 금액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한 청년들은 개인 차원에서 삶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남
-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에 대해 '변화 있음'(60.3%)이 '변화 없음'(15.9%)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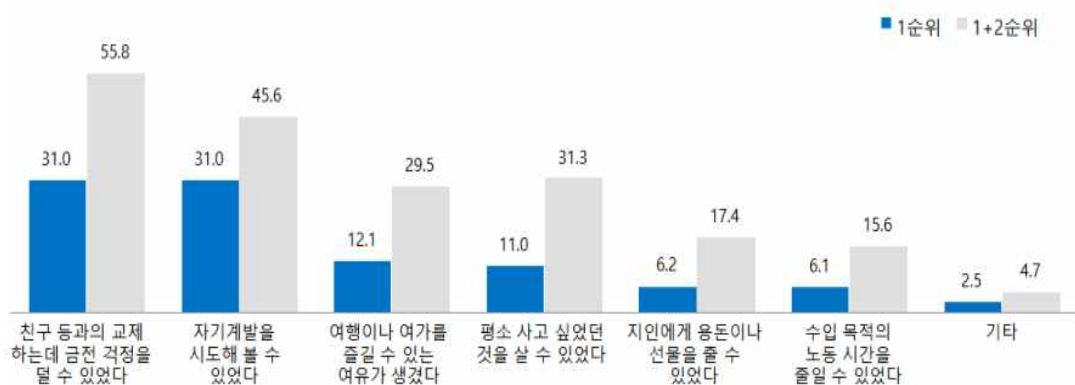


○ 구체적인 삶의 변화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보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재구성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음

- 1순위와 1+2순위 모두 다, 가장 변화된 내용으로 친구들과의 교제에 금전적 걱정을 덜 수 있었음을 꼽고 있음. 이를 통해 그동안 젊은 청년들의 삶이 친구를 마음 편히 사귄다 수 없을 만큼 그리 크지 않은 금액조차도 금전적 제약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 내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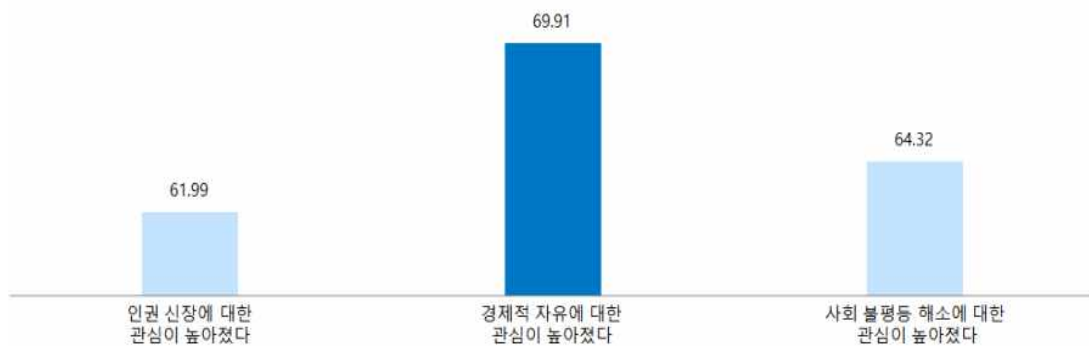


○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청년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나 국가/지자체/가족 공동체 및 개인 자신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남

-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9.91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4.32점),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1.99점) 순으로 나타남

<청년기본소득 수령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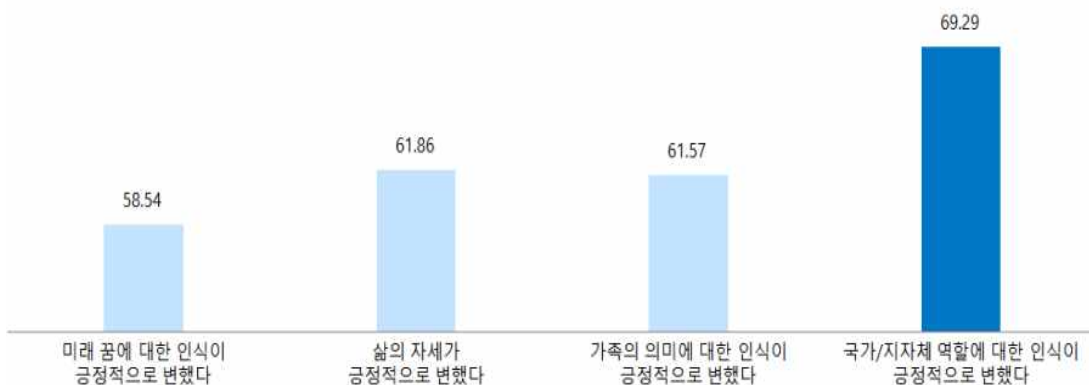
(단위 : 점)



- 이밖에도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69.29점),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했다'(61.86점),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61.57점) 등에서 보듯이 청년기본소득은 개인과 공동체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

<청년기본소득 수령으로 인한 개인 및 공동체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점)



Ⅲ. 청년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반응

청년들 80% 이상이 경기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잘 쓰고 있다고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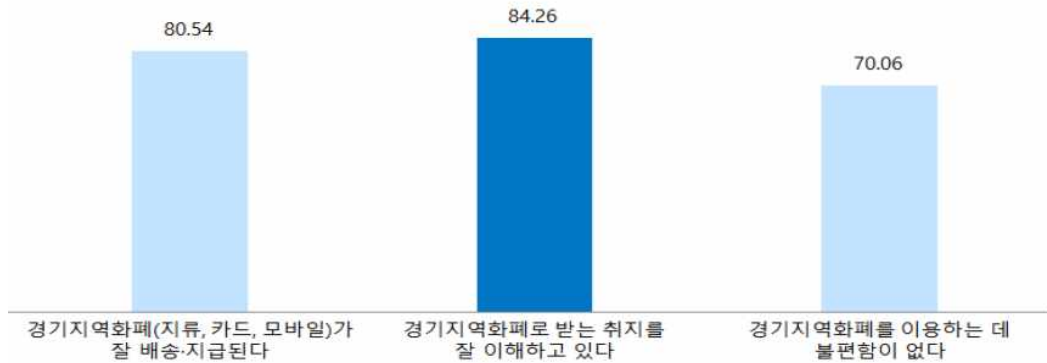
□ 청년들 대다수가 지역화폐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지역화폐가 편리하며, 잘 쓰고 있고,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

○ ‘경기지역화폐로 받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84.26점), ‘경기지역 화폐가 잘 배송·지급된다’(80.54점),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70.06점) 등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임

- 청년들은 지역화폐의 근본취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임을 이해하고, 이러한 정책의 목적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각 시군 기초지자체의 홍보와 대응이 비교적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짜임새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는 지역에서조차 100%의 인지응답률을 보이기도 함
- 청년기본소득에 만족하는 이유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1.6%)가 2위를 차지한데다 이것이 1+2+3 순위만을 놓고 보았을 때 전체 1위(66.1%)를 보인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
- 이는 청년이 복지의 수혜자로서 지역화폐를 수동적으로 지급받는 대상적 존재가 아니라, 정책의 옳고/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지역화폐 정책의 동반자’이자 ‘참여형 권리자’임을 자각하고 있음을 말해줌

<청년기본소득의 경기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응답>

(단위 : 점)



<지역화폐 정책 홍보효과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간접지표 : 인지 응답률>

- 경기지역화폐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95.2%),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사행성업소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97.5%), '현금영수증과 30% 소득공제 가능하다'(71.8%), '가맹점 어디서나 결제 가능하다'(83.6%) 등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시군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에 **100% 인지응답률**을 보인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은 경기도 북부 지역임. 이 지역은 그동안 지역화폐 운영이 활발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이번 청년기본소득의 홍보 시에 지역화폐에 대한 소개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자료 : 저자 작성

□ 청년들 대다수가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를 받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함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됨

- 청년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대해 높은 긍정적 답변(73.6점)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 함양에 대한 관심 증가도 높은 점수(69.91점)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주관적 관심도의 크기가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에 대하여 가시적이고 명확한 객관적 결과로 나타나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으나 분명한 점은 많은 청년들이 관심이 가지게 됐다는 것임

- 이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공급) 정책이 수요자(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족시키는 지역화폐로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화폐 정책의 긍정적인 전망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함양에 대한 관심도 변화>

(단위 : 점)



□ 지역화폐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별도로 불편한 점의 개선은 여전히 필요

○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해 ‘그렇다’(64.6%)가 ‘그렇지 않다’(15.8%)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지역화폐는 ‘지역내 일정조건을 갖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기본적으로 불편함이 따르므로 불편함의 표현은 자연스러운 답변일 수 있음. 그런데 청년들의 반응은 “지역화폐 취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87.9%)”가 매우 높는데 반해 “이용에 불편함(15.8%)”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지역화폐 정책의 긍정성을 확인시켜 줌
- 다만, 지역화폐의 소비자 접근성 등을 강화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필요는 있음

○ 지역화폐 사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사용가능한 가맹점 찾기’임

- 지역화폐 사용 시 애로사항으로 ‘사용가능한 가맹점 찾기’를 가장 불편한 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지류형 41.4%, 카드형 61.8%, 모바일 45.2%]
- 이는 소비자 측면에서 지역화폐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 됨. 지역내 ‘현재 시점, 현재 위치’에서 ‘나에게 꼭 필요하고 접근가능한 가맹점’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시급히 요구된다 할 것임

- 새로운 가맹점 지도 App 개발을 통해 ①App을 통한 실시간 정확한 가맹점 정보 제공 ②가맹점 App의 활용성, 편의성, 이벤트 요소 증진 ③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노출도 및 주목도 강화를 위한 표식 제공 등을 할 필요가 있음

<경기지역화폐 App과 홈페이지>



경기지역화폐 App 첫 화면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가맹점 찾기 사이트
<http://www.gmoney.or.kr/main/gmoney/searchFranchisee.do?menuNo=040000&subMenuNo=040100>

○ 지역화폐 사용에서 희망하는 사항으로 ‘거주지 외 사용범위 확대’ 등이 거론됨

- 향후 개선 희망사항으로 ‘가맹점 확대 및 다양화’ 이외에도 ‘거주지 외에 경기도 내 사용 희망 지역까지 사용범위 확대’(2번째 순위의 응답)를 언급한 것은 실제 사용상의 개선책을 요구한 것으로 청년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함을 의미함
- 거주 지역별 ‘거주지 외에 경기도 내 사용 희망 지역까지 사용범위 확대’ 응답은 의왕시(32.6%), 안성시(32.4%), 포천시(25.7%) 순으로 높았음. 반면, 성남시(4.3%), 시흥시(9.0%), 안양시(9.2%)의 경우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지역 밖으로의 사용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지역화폐는 특정한 지역에 한정하여 사용됨으로써 지역의 소득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내 경기 선순환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인 만큼 지역적 한계는 지역화폐의 고유한 영역이자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일률적인 지역화폐 정책에서 좀 더 유연하기를 요구한다고 해석 가능함

<지역화폐 사용 관련 희망사항>

(단위 : %)



※ 대안을 찾아라

‘거주지 외에 경기도 내 사용 희망지역까지 사용범위 확대’

<대안 1>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역화폐(中域貨幣)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시군단위 지역별 사정에 따른 정책의 진행경과 및 효과를 검토 및 분석하면서 향후 새로운 대안 및 전망을 기획하여야 할 것임. 이 중,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인근 시군을 2~3개 단위로 묶은 중역(中域) 지역화폐를 구상해 볼 수 있음. 이때 고려사항으로, 시군에 따라 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간 보상과 배려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임. 또한 중역권 구획(區劃)을 위하여, 행정구역, 선거구, 경제·사회·문화·지리적 여건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지역사회에서의 논의가 필수적임

<대안 2>

각 시군단위 지역화폐를 타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일부를 허용함. 문제의 발생원인은, 첫째 청년기본소득을 수급받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준지역)와 학교, 취업활동, 직장생활을 위한 주활동지역이 다름으로 인한 것. 둘째, 상권 및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원하는 상품을 직접 구매하기가 어려운 경우임.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첫째 활동근거를 입증(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할 경우 경기 1개 시군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인정해주는 방법이 있음. 이 경우 행정상으로는 확인 불가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의 폐단 방지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야 함. 둘째, 경기도를 광역화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기준지역)에서는 100% 가치로 사용 가능하되, 경기내 타 시군에서 사용시 일정비율(예를 들면, 5~10%)을 차감하여 사용가능하도록 허용함. 차감에 따른 잉여금은 기준지역에서 관할하도록 함. 이 때 차감율이 지역화폐의 타 시군 사용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인 지역경제 균등발전보다 상권이 집중되는 일부거점에 집중·집적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부(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자료 :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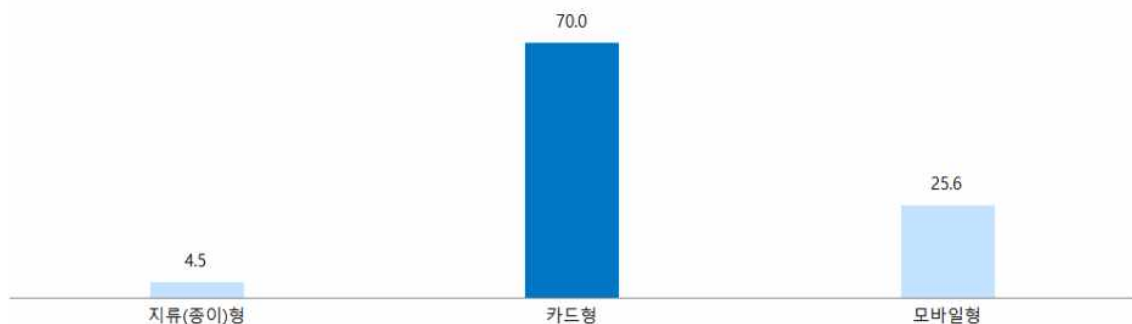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발행유형 중 대세는 카드형, 모바일은 미래형

□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유형 중 청년들은 카드형을 압도적으로 선호

- 지역화폐 발행유형 선택에는 디지털 접근성, 지역이동 가능성, 독립적 경제활동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선택한 지역화폐 발행유형은 카드형(88.8%)이 절대적임
 - 전체적으로 생활수준에 따라 카드형은 대학재학생, 부부가구, 가구소득 100~200만 원, 생활수준 중·하에서 주로 선호하고 있음
 - 모바일형은 대졸이상, 자녀와 동거,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 생활수준 상에서 나타나고 있음
- 향후에 사용하기 선호하는 지역화폐 유형은 여전히 카드형이며 모바일형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들이 향후에 사용하기를 선호하는 지역화폐 발행 유형으로 카드형(70.0%)이 여전히 월등히 높고, 모바일형(25.6%)이 다소 낮으나 그 뒤를 따르며 지류형(4.5%)은 극히 낮은 수준임

<미래 선호 지역화폐 유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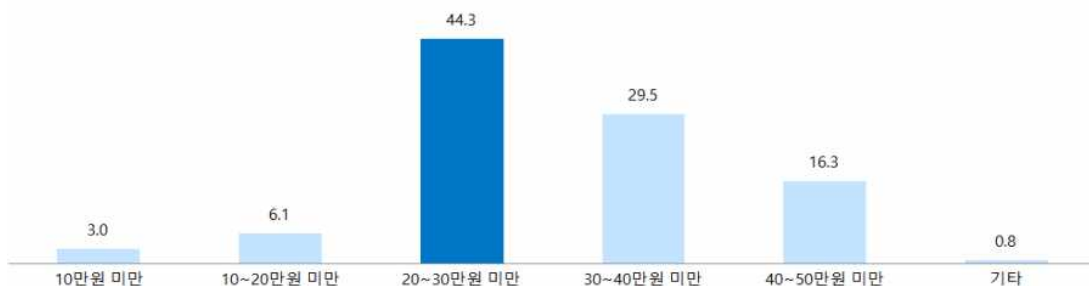
IV. 시사점

청년기본소득을 경기도 이외 타 지역에서도 실시(71.31점) 필요

- ☐ 청년들은 높은 만족도(80.6%)를 바탕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의 확대에 높은 수준의 반응을 보임
 - 청년기본소득을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반응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국적 사업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음
 - 만24세에만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확대하고(64.6%), 장애인, 농민, 예술인 등 특정 집단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66.86점)에 비춰볼 때 단계론적 접근으로서 다양한 범주 기본 소득의 실시를 청년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20년 분기별 적정 청년기본소득 금액으로 '20~30만 원 미만(44.3%)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지만, 개선이 필요한 사항 중 '지급 금액을 늘려야 한다'(25.5%)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청년 기본소득 지급금액의 확대 역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됨

<내년(2020년) 청년기본소득의 분기별 적정 금액>

(단위 : %)



경기지역화폐의 미래 화폐유형에 대한 대비 필요

□ 미래 삶의 변화를 고려한 모바일형 지역화폐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미래사회는 현금 없는 (Cashless)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다수의 미래예측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형이 미래 지역화폐의 장기추세임
 - 만족도 조사에서 향후 선호하는 지역화폐 유형으로 카드형(70.0%), 모바일형(25.6%)으로 나타나 현재는 카드형이 대세이지만, 장기적으로 사용자(소비자)들의 수요는 점차적으로 모바일형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됨
 -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격차로 인한 경제력격차, 소득격차, 학력격차, 정보격차, 세대격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함
 - 이에 대한 대안으로, ①일정기간, 일정비율의 지류형 화폐를 한정적으로 발행하는 방법, ②디지털 격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문해교육 활성화, ③QR시스템 등 편의성이 증대된 사용자 맞춤형 AI(인공지능)형 지역화폐의 창안과 보급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가맹점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한 App 개발 및 체계적인 대안 마련 필요

- ‘가맹점 찾기’ 문제는 지역화폐 App의 활성화 및 개선, 실시간 대응을 요구함
 - 가맹점 확대 및 다양화(54.3%)가 애로사항 1위로 전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지역화폐를 사용함에 있어 가맹점 찾기, 가맹점포의 업종 다양화, 다수의 가맹점 확보 등이 과제임을 알려주고 있음
 - 즉, 가맹점 찾기는 ‘경기지역화폐’ App의 활성화 및 전반적인 개선(실시간 대응, 현 위치에서 가맹점 현시(現示), 업종별/지역별 현시 등), 파릉이(서울시 공유 자전거 App)나 인터넷 포털 지도찾기 서비스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의 최신 정보수요 수준을 반영한 새로운 가맹점 소개 및 활용 App 개발이 필요함. 경기지역화폐 App을 플랫폼(Platform) 생태계 및 생활주거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함. 플랫폼에서 생성·유통·교환·소비·양산되는 빅데이터는 미래사회의 먹거리이므로 향후 사회적 논의가 매우 중요함

□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하나의 미래형 융합정책으로 공고해져야 함

-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들의 지역화폐에 대한 취지이해, 불편함, 사용상 애로점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이러한 반응은, 청년들이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분리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지역화폐'를 일체화시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번 '지역화폐 연계형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와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불러 일으켰음
 -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홍보, 기대, 효과, 만족도는 상호의존적으로 상승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복지정책은 경제사회정책과 긴밀한 융합 속에 전개되어야 정착 및 성공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
 - 그동안 복지정책은 하나의 목표치만을 위한 단순 정책으로 기능해 왔음. 그러나 이번 경기청년기본소득의 사례에서 보듯이, 복지수당이 '지역화폐 연계형'으로 전달된다면 사회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향후 복지정책은 복지·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융합형 정책으로 성장 및 전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을 시사함. 그리고 경기지역 31개 시군은 일단 현 상황에서는 각자 독자적으로 지역특색과 사용자의 수요에 맞게 발행유형(지류/카드/모바일 형)을 선택하여 시행해 가도록 하되,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향후 Block-chain에 기반한 모바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도·시군별 예산】

(단위 : 천원/명)

시군	대상자(명)	총예산	도비	시군비	비고
계	175,281	175,281,000	122,696,000	52,585,000	
수원시	18,724	18,724,000	13,106,800	5,617,200	
고양시	15,246	15,246,000	10,672,200	4,573,800	
용인시	12,882	12,882,000	9,017,400	3,864,600	
성남시	12,986	12,986,000	9,090,200	3,895,800	
부천시	12,570	12,570,000	8,799,000	3,771,000	
안산시	11,194	11,194,000	7,835,800	3,358,200	
화성시	7,840	7,840,000	5,488,000	2,352,000	
남양주	8,386	8,386,000	5,870,200	2,515,800	
안양시	8,502	8,502,000	5,951,400	2,550,600	
평택시	6,512	6,512,000	4,558,400	1,953,600	
의정부	6,352	6,352,000	4,446,400	1,905,600	
파주시	5,240	5,240,000	3,668,000	1,572,000	
시흥시	6,406	6,406,000	4,484,200	1,921,800	
김포시	4,396	4,396,000	3,077,200	1,318,800	
광명시	4,263	4,263,000	2,984,100	1,278,900	
광주시	4,227	4,227,000	2,958,900	1,268,100	
군포시	3,754	3,754,000	2,627,800	1,126,200	
이천시	2,703	2,703,000	1,892,100	810,900	
오산시	2,783	2,783,000	1,948,100	834,900	
하남시	2,748	2,748,000	1,923,600	824,400	
양주시	2,603	2,603,000	1,822,100	780,900	
구리시	2,933	2,933,000	2,053,100	879,900	
안성시	2,186	2,186,000	1,530,200	655,800	
포천시	1,908	1,908,000	1,335,600	572,400	
의왕시	2,281	2,281,000	1,596,000	685,000	
여주시	1,255	1,255,000	878,500	376,500	
양평군	1,137	1,137,000	795,900	341,100	
동두천	1,209	1,209,000	846,300	362,700	
과천시	806	806,000	564,200	241,800	
가평군	660	660,000	462,000	198,000	
연천군	589	589,000	412,300	176,700	

자료 :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2019),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운영 지침(안)」.